

## 청소년 성행동의 또다른 측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위험요인들

윤 경 자\*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행동 중에서도 특히 여태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발생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이에 관련된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후유증을 남기지만 특히 비자발적인 성행동은 미성숙한 상태인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및 신체적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런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 상담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12세-19세 사이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표본 769명(남학생=370명, 여학생=390명, 무응답=9명) 중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을 당한 경우는 53명(7.0%)이었다. 이들과 이런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간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을 위해, 원치 않는 성행동의 경험유무에 따라 청소년들을 두집단(각각 집단1, 집단2)으로 나누었고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 769명의 청소년들 중 예측변수들 중에서 한 변수라도 missing data가 있었던 대상자들을 제외한 460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석은 전반적으로 83%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집단1과 집단2는 각각 65%와 84%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임신경험, 분위기, 성별, 음주, 파트너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소득, 성경험 및 성태도가 친구와 유사한 정도, 성행동, 부모의 결혼지위, 부모의 모니터, 성접촉에 대한 압력 및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헌신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005$ ). 특히 임신경험은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고 이성으로부터 성접촉에 대한 압력을 받을수록, 성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였을수록, 분위기가 좋을수록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접촉을 한 경우와 관련되어 있었다. 부모와의 대화나 관계정도 및 부모와 성태도의 유사성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유의한 예측변수로 기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모니터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친구의 규범에 덜 순응하였고, 부모의 모니터를 받는 가정에 있으며 편부모나 계부모 등의 결손가족 배경이 아니며, 임신경험이 없고, 음주나 분위기 등 위험요인이 되는 환경에 더 적게 접하였다.